

I | 수입제도 변경사항 / 수출현안

1. 말레이시아 식품 수입액 555억 링깃(약 15.7조원) 기록

- 말레이시아는 소비자의 요구와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20년 한해 식품 수입 555억 링깃(약 15.7조원)을 기록
- 수입 의존 국가로서 식량 안보는 수년 동안 말레이시아에 중요한 과제였으나 코로나19 팬데믹의 결과로 그 위험은 더욱 증가했으며, 이는 앞으로 닥칠 수 있는 기후, 환경, 건강 이슈에 대한 충격에 직면하면 더욱 시급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
-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전파를 억제하기 위해 말레이시아는 국가이동통제명령(MCO)을 통하여 제한된 시간과 제한된 직원 수로 필수 서비스만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하는 동안 식품 생산 분야에는 큰 타격을 입음
- 국가이동통제명령(MCO)은 또한 소비자 구매를 크게 제한하여 일부 농산물이 전년도에 비해 높은 자급률(SSR)을 기록하도록 영향을 미치기도 함
- 말레이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말레이시아는 국내 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호주와 태국, 인도, 인도네시아로부터 각각 양고기(8억7,940만 링깃), 망고(8,790만 링깃), 코코넛(2억6,610만 링깃), 쇠고기(220만 링깃)를 대량 수입하였음
- 한편, 통계청 데이터에 따르면, 고추와 생강, 배추의 수입 의존도 많이 높았지만 이는 지속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

* 출처 : 2021년 10월 19일, The Sun

2. 말레이시아 농산물 수출액 35억 링깃(약 9,909억원) 증가

- 말레이시아의 농업 부문 수출은 제11차 말레이시아계획(11MP)에 따라 2014년 302억 링깃(약 8.5조원)에서 2020년 11.58%(35억링깃)가 증가한 337억 링깃(약 9.5조원)을 기록
- 전체 농산물 수출의 약 70%가 가공제품이며, 수출 품목 중 가장 높은 가치의 품목은 열대 과일로서 2020년 수출액은 13억 4천만 링깃(약 3,794억원)임
- 과일 중에서 두리안(7,400만 링깃), 수박(6,600만 링깃), 파인애플(5,200만 링깃), 바나나(3,200만 링깃), 파파야(3,000만 링깃)가 가장 높은 수출실적을 기록
- 2020년 보존 과일(preserved fruits)은 3만2,789톤(8억2,900만 링깃)이 수출되었으며, 과일주스와 야채는 2만251톤(9,000만 링깃)이 수출되었음
- 한편, 농업 및 식품산업부(MAFI)의 로날드 키안디 장관에 따르면, 지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1만367헥타르의 유희지를 개발하고 총 1억1,100만 링깃의 배당금과 함께 8,179명의 기업가들에게 할당하였으며, 여기에서 과일과 벼, 코코넛과 같은 다양한 작물이 재배되었고 그 생산량은 25만 톤(2억1,450만 링깃 가치)을 기록

* 출처 : 2021년 10월 6일, 베르나마통신

3. 말련 정부, 쿠알라룸푸르(Kuala Lumpur) 내 주류 판매규제 조치 시행

- 지난 11월 1일부터 쿠알라룸푸르 시청(DBKL)은 쿠알라룸푸르에서의 주류 판매를 제한하는 주류 판매규제 조치(Alcohol ban)가 시작됨
- 해당 규제안은 작년 11월에 처음 발표되었으며 당초 올 10월부터 적용 계획이었으나 세부 지침에 대한 연구 마무리를 위해 11월 1일 적용으로 연기됨
- 새 규제안에 따르면 쿠알라룸푸르 내의 식료품점, 편의점, 전통약제상에서는 위스키 등의 고도수 주류(Hard liquor)를 판매할 수 없고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맥주 판매만 허용됨

쿠알라룸푸르 내 주류 판매제한 조치 세부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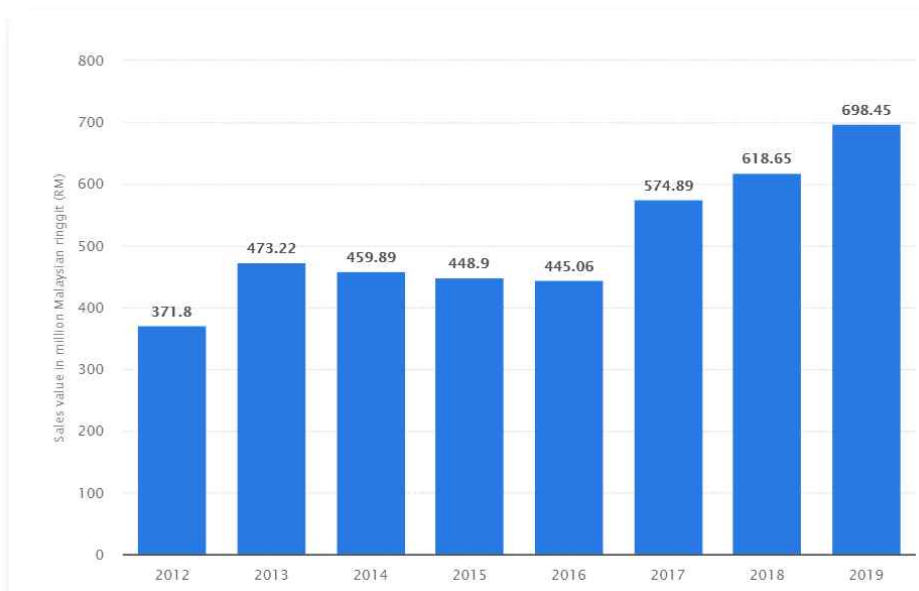
판매주류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료품점, 편의점, 전통약제상에서 고도수 주류(Hard liquor) 판매 금지 - 고도수 주류는 주류 전문 도매점 및 대형유통매장에서만 판매 가능
판매시간 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점 및 음식점 : 오전 10시 ~ 자정 - 도매점(주류전문판매점) : 오전 7시 ~ 오후 9시 - 소매점(대형유통매장, 편의점 등) : 오전 7시 ~ 오후 9시
기타 제한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찰서, 예배당, 학교, 병원 주거시설 100m 내 주류 판매 금지 - 모든 주류 취급 사업장은 사업장 내부에 주류 판매 라이선스를 상시 비치하고 출입구에 청색(사업장 내 음주 가능) 및 황색(사업장 내 음주 불가, 테이크아웃만 가능) 라이선스 QR코드 부착 의무 - 21세 미만 방문객 및 무슬림에게 주류 판매 금지

* 출처 : therakyatpost.com

4. 말레이시아 생수 수요 증가

- 2020년 말레이시아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일환으로 MCO(이동 제한 명령)를 시행하게 되면서 많은 가정에서 대량으로 생수를 구매하게 되었음. 특히, 생수 중에서도 탄산수나 가향생수에 대한 수요보다 정제된 생수 및 천연미네랄 생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 또한 지난해 쿠알라룸푸르와 셀랑고르 지역에서는 물 공급이 중단되는 일이 종종 발생함에 따라 앞으로도 생수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2012-2019 생수 판매량>



-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대부분의 가정에서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대량으로 생수를 구매함에 따라 저가 브랜드의 생수를 선호하기 시작. 코로나19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가계소득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침
- 저가 브랜드 라인의 확대와 대형 소매업체 등에 판매라인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소비층에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고 있음. KK슈퍼마켓, 세븐일레븐, 테스코 등과 같은 유통업체에서는 현재 가격경쟁력이 있는 저가 브랜드 생수 제품에 상당한 판매라인을 할당하고 있음
- 그동안 외곽지역에서는 물 공급이 부족했으나 이러한 저가 브랜드의 증가로 원활한 보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 현재 다양한 저가 브랜드의 공세와 더 높은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기 위해 유통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 대형 매장에서 더 나은 선반 배치를 위해 경쟁이 심화 될 것으로 예상됨
- 저가 브랜드의 공세에도 불구하고 말레이시아 생수 시장 점유율 1위를 유지하고 있는 Spritzer Bhd는 코로나19 속에서도 계속 시장을 선도하고 있음. Spritzer 생수는 정제된 정수를 공급하고 있으며 다양한 소비층에서 사랑받고 있음. Spritzer Bhd는 소비자 맞춤형 크기의 팩을 출시하는 것 외에도 한정판 디자인을 출시하는 등 다양한 마케팅 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Shopee 및 Lazada 등 전자상거래 시장에 입점하여 말레이시아 외곽지역까지 배송 범위를 확장하여 온라인 시장에서도 강세를 보이고 있음
- 생수에 대한 전자상거래 수요는 아직 미미한 편에 속하지만, 지금과 같이 코로나19가 지속되어 자가격리를 이어나가게 될 경우 온라인상에서도 생수에 대한 수요는 가파르게 상승할 것으로 예상됨

* 출처 : 2021년 10월 26일, The Star

1. 말레이시아 세관, 중국 수입 파 1톤 압수

- 조호바루 탄중 펠레파스 항구에서 중국산 파 1톤(5,184링깃 상당)이 압수
- 세관은 선적 컨테이너에 대한 정기 점검 중 이를 적발했으며, 다른 야채들에 대해서는 수입허가가 있었으나 파는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채 100개의 중국산 수입 야채 상자에 숨겨져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말레이시아 검역 및 검사 서비스법(Act 728) 11(1) 조항에 의거, 물품은 압수 되었으며, 업체 또는 개인은 최대 10만 링깃 벌금형이나 6년 이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에 처해질 수 있음
- 상습범의 경우는 벌금 최대 15만 링깃,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두 가지 모두가 구형될 수 있음

* 출처 : 2021년 9월 11일, The Star

2. 말레이시아 세관, 포트클랑 물류창고서 밀수 주류 및 담배 압수

- 말레이시아 세관은 포트클랑 판다마란 지역의 한 물류창고에서 세금을 납부 하지 않은 밀수 주류 및 담배 제품 약 717만 링깃 상당을 압수
- 세관의 직원들은 8월 26일 저녁 해당 건물을 급습하여 담배 800만 개피와 독주 1만 1,370리터를 적발했음
- 37만2,150링깃 추정의 술은 미납 관세로 약 128만 링깃 가치가 있으며, 84만 8천 링깃 추정의 담배는 미납 관세로 약 589만 링깃의 가치가 있다는 것이 세관의 설명
- 이번 사건은 ‘관세법 1967’ 135(1)(d)조항으로 분류되었으며, 말레이시아 정부는 특히 담배와 술, 마약, 폭죽, 차량과 관련된 밀수 활동 단속에 집중하고 있음

* 출처 : 2021년 9월 3일, The STAR

IV

FTA 이행이슈 관련

(해당없음)